

타자 이해에 대한 시교육적 고찰 —한하운의 시를 대상으로

박주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 * 이 논문은 제66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8.6.9.)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보완할 지점을 짚어주신 전북대학교의 민재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진흥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대학원생 주도 연구 과제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I. 머리말
- II. 시 읽기에서 타자 이해의 성격
- III.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 방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며 성장하는 존재이다. 이는 인간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자신과 다른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기존의 자신을 벗어나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전제한다.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주체의 변화를 촉발하는 외부적 존재 일체를 타자로 정의할 때, 타자에 대한 이해를 확대·심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된다.

아울러, 문학은 그 특유의 허구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부면들을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라는 점에서 타자 이해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해된다.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물에 대한 동일시가 의도적, 총체적 인간교육에 유효한 기능을 수행한다거나(구인환·박인기·우한용·최병우, 2012: 60), 문학능력이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주장(김대행·우한용·정병현·윤여탁·김종철·김중신 외, 2000: 63), 문학작품을 읽는 일 자체가 자아와 타자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일(류수열·한창훈·정소연·김정우·임경순·한귀은 외, 2014: 18)이라는 설명 등은 이러한 관

점을 반영한다.

한편, 근대의 동일성 중심 철학이 해체의 대상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타자' 개념에 대한 이해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체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타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주체의 타자성과 타자의 동일성과 같은 복합적인 상태를 사유하는 등 타자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다각화되고 있고, 사회의 권력 집단에 의해 타자로 호명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박탈당하게 되는 주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 등 타자에 대한 성찰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문학교육에서 타자 이해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이로부터 제기된다.¹⁾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이후 '타자'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등장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타자와 연관된 문제가 다루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²⁾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타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고립되고 배타적인 관점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공동체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타자 이해의 관점이 경직됨에 따라, 교과서상에서 타자의 양상이 매우 협소하게 제시되고 있으며(정호웅, 2018), 교육 내용 또한 피상적인 타자 경험(문선영, 2014)이나 타

1) 최인자(2009: 281-282)는 문학교육에서 '타자 지향'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주체 중심'의 문학교육의 방향을 확장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타자 지향의 문학교육은 고립된 단일 주체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의 호소와 요구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면서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타자 윤리학에 근거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2) 연관된 성취 기준은 아래와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및 교육과정 해설
(4) 문학과 삶	문학과 자아	②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한다.
	문학과 공동체	② 문학을 통하여 양성평등, 사회적 소수자, 생태, 미래 사회 등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자에 대한 상투적인 관점을 재생산(박수현, 2016)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는 문학교육에서의 타자 이해가 학습자와 문학을 통해 재현된 타자 사이의 다면적이고 구성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문학을 통한 타자 이해는 일회적으로 완결되는 것 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실제 독자’³⁾로서의 학습자가 교사 및 다른 학습자의 해석 및 작품에 대한 비평 등을 접하는 가운데 자신의 해석을 공적으로 조정하는 계기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자와 작품 속 타자의 관계는 해석에 앞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재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

이런 맥락에서 ‘공감에 기초한 타자 이해 교육’ 또는 ‘타자의 이해불가능성을 존중하는 타자 교육’과 같이 특정한 타자 이해의 방향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각각 피상적·상투적인 타자 이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의 타자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관점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에 앞서 독자와 타자의 관계가 선형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없다면, 타자 이해를 위한 교육은 문학 텍스트에 재현된 주체 또는 대상의 타자적인 면모를 적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타자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와 타자의 관계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타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 또는 무관심과 혐오감을 반영할 수도 있다.

3) “‘실제 독자’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독자로서 해석 과정에서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릇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독자,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혹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오류를 교정할 수도 있는 ‘과정 중의 독자’를 의미한다.”(최미숙, 2012: 141)

이는 문학교육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타자 이해가 보다 수용 가능한 것으로 조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타자 이해가 갖는 과정적 성격에 주목하여, 학습자가 시 읽기의 과정에서 타자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석 과정에서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⁴⁾

II. 시 읽기에서 타자 이해의 성격

일상적인 의미에서 타자는 ‘나’라는 존재의 바깥에 놓여 있는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즉, ‘나’를 기준으로 대상화되고 주변화된 존재를 타자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때의 타자는 ‘나’는 아니지만, ‘나’에 의해 대상화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나’와 별개의 존재로 인식되지는 않는다.⁵⁾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타자 이해가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무자비한 살인자 앞에서 인간은 선하다는 신념이 흔들리거나,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나’의 경험역과 타자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타자에 대한 ‘나’의 관점이 부적합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질적 존재들과의 대면 앞에서 우리는 타자에 대한 경험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며, 타자 이해를 위한 대안적 관점을 새롭게 모색하거나, 그 이해를

-
- 4) 서정 장르로서의 시는 자아와 대상의 동일성이 부각되는 장르라는 점, 화자나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함축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타자 이해를 위한 제재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타자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넘어서 타자적인 특성에 대한 민감한 지각, 정서적 반응, 윤리적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타자 이해를 위한 교육 제재로서 시의 가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 5) 흔히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사람이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도 인격적인 요소를 투영하는 것은 이러한 일상적인 방식의 타자 경험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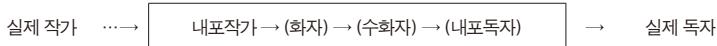
가능성 앞에서 좌절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타자적인 것은 ‘나’에게 외재적인 존재가 갖는 동질적 이거나 이질적인 속성들의 종합으로 인식되며, 경험역의 확대나 변화 과정을 통해 그 인식 내용이 지속적으로 수정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타자 경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타자 경험 또한 이런 성격을 공유하지만, 일상에서 경험하는 타자가 ‘나’의 신체를 경계로 비교적 명료하게 지각 가능한 존재인 반면, 문학을 통해 경험하는 타자는 언어가 함축적으로 환기시키는 타자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독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문학 읽기의 과정에서는 타자를 경험하는 것에 앞서 독자가 타자적인 존재를 상상 속에서 적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문학에서의 타자라고 하면, 화자/서술자나 작품 속 인물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지만, 문학을 의미를 소통하는 담화로 본다면 독자가 구성 가능한 타자의 층위 또한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어떤 층위의 타자에 독자가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타자 이해의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다.⁶⁾ 이처럼 타자에 대한 가설적 구성 가능성, 다층적 인식 가능성성이 시를 포함한 문학 일반이 공유하는 속성이라면, 시 읽기에서의 타자 이해의 특성은 기본적으로는 시가 갖는 서정 지향성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

시의 장르적 특성으로 서정성을 제시하는 것은 시가 다른 장르에 비

6) 채트만은 서사 텍스트의 구조를 내용의 국면인 ‘이야기’와 표현의 국면인 ‘담론’으로 나누고, 중재된 서술로서의 담론 구성 요소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Chatman, 2003: 168)



한편, 채트먼의 담론 구성 요소를 시 해석에 적용한 김창원(1993)은 독자가 담론의 구성 요소 중 어떤 층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해 주체의 주관적 정서 표현이 부각되는 장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⁷⁾ 이런 맥락에서 시의 이념적 지향을 세계의 자아화(조동일, 1992) 또는 동일성(김준오, 2007)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정 장르로서의 시는 ‘창조적 시인’으로 대변되는 1인칭 주체의 문학이며, 동시에 이러한 주체와 세계 사이의 화해로운 통합과 일체감을 지향한다는 것(유성호, 2017: 236)을 함의한다.

이처럼 서정성이 동일성, 독백성, 세계화의 화해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는 타자들은 서정적인 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에서 타자 경험의 가능성성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⁸⁾ 서정성이 세계의 자아로의 흡수, 세계에 대한 자아의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각이 일견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체와 세계의 완전한 조화 상태를 표명하는, 하위 장르로서의 순수서정시나 서경 묘사가 주가 되는 개별 시 작품들에서 타자 이해의 계기가 빈약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많은 현대시들에서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대립·갈등이 지배적”(김준오, 2007: 42)이라는 진단에 비추어 볼 때, 서정 장르 일반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서정의 범주를 확장하여 설명하는 아래와 같은 시도들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시에서 주체의 정서 표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를 서정시라고 정의하자.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만족과 불만족, 행불행의 정도를 측정하면 서정시

-
- 7) 서정을 주관의 범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론적 태도는 18-19세기 독일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헤겔은 이러한 서정시의 주관성을 장르 이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초역사적 관점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고봉준·조해오, 2007: 47)
 - 8) 비흐친이 시의 이념적 지향이 세계에 대한 다원화된 이데올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화적 장르인 소설과 구별하여 시를 독백적인 장르로 규정한 것 또한 유사한 시각을 보여준다.(Davidson, 1997: 225-226)

의 자리가 드러날 것이다. 서정시의 반대편에는 실험적인 시가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의 모습을 특별히 재구성하여 드러낸 시들이 있다.”(권혁웅, 2010: 137)

물론, 서정성의 의미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 또한 시 장르의 복합성을 사상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서정성과 타자 이해의 관계를 보다 유연한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이해가 사실적 이해를 넘어 타자의 고유성과 상황에 몰입하는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우리사상연구소, 2001: 138), 타자에 대한 주체의 감성적 수용과 상상적 연루를 가능케 하는 서정적인 시는 그 나름대로 독자에게 타자 이해의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정적인 시에 내재적인 타자 이해의 계기를 설명하는 시도로 슈타이거(Emil Steiger)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슈타이거는 서정 장르에서의 주체와 세계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다루면서도, 양자의 관계를 주체에 의한 세계의 내면화로 보는 시각을 지양한다는 점⁹⁾에서 본고의 논의에 참조점을 준다.¹⁰⁾

슈타이거는 서정성을 갖는 모든 현상의 본질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무간격성을 제시한다. 고전주의 시대부터 서정적인 시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문예라는 관점이 있어 왔지만, 이러한 분류는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상 하나의 주체가 인식하는 세계란 항상 하나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파악되는 까닭에, 객관적이라는 말이 ‘주관으로부터 독립된’이라는 말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정적인 시의 주관성을 내향적인

9) 유사한 맥락에서 박현수(2007: 276-277)는 슈타이거의 논의를 주체와 객체가 어느 한쪽에 복속되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주체적 서정성’에 관한 논의로 해석한다.

10) 이하 슈타이거의 서정성에 관한 설명은 국역본 Steiger(1978)를 참고. 의미가 불분명한 일부 번역은 영역본 Steiger(1991)을 참고하여 수정하였고 이 경우 원문 용어와 영문 번역어를 병기하였다.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서정적인 시에서 주관으로부터 독립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밀히 말해 주객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teiger, 1978: 91-93)

이런 관점에서 슈타이거는 서정적인 시에서 주체는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정적인 시에서의 주체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주체, 세계를 자기 속으로 진입시키는 주체라기보다는 대상과 끊임없이 상호침투(Ineinander, interpenetration)¹¹⁾하는 존재라는 것이다.(Steiger, 1978: 96) 따라서 그는 서정적인 시에서는 주체가 느끼는 정조 또한 시·공간의 경계가 흐려진 채 체험된다고 설명한다.¹²⁾

슈타이거의 관점은 시인의 창조적 주관성을 강조한 18세기의 낭만주의 시관에서 비롯된 깊이에, 시의 현실 연관성을 부정하고 해석 불가능한 것으로 신비화한다는 점에서 근대 이후의 시적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¹³⁾ 그러나 이러한 관점 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정성을 주체와 세계의 상호침투로 이해하는 관점이 서정적인 시에서 타자적인 것의 틈입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상호 뒤섞임의 의미를 갖는 독일어 'Ineinander'를 국역본에서는 '상호 융화'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영역본에서는 상호침투나 관통의 의미를 갖는 'interpenetr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상호 침투'와 '상호 융화' 모두 주체와 대상의 섞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융화라는 표현이 이미 섞임 이후의 조화를 전제하는 반면, 침투의 경우 섞임 자체에 보다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는 점에서 균열을 내재한 섞임을 포괄하는 상호침투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슈타이거는 서정시에서의 정조는 과거의 체험을 현재의 입장에서 대상화하는 '기억'과 구별하여 과거·현재·미래가 상호침투하는 '회감(Errinnerung, remembrance)'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서정시에서의 정조는 육적인 실태인데, 여기서 '육신(Leib, body-soul)'은 단지 외부 세계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신체(Körper)'와 달리 외부 세계와 정신 사이의 간격을 허물어 양자를 연결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teiger, 1978: 96-103)

13) 램핑은 서정적 정조에 관한 슈타이거의 이론이 독일 낭만주의 학파의 제약적인 서정시 개념의 한계를 더욱 좁혔다고 비판한 바 있다.(Lamping, 1994: 94)

슈타이거의 설명에 따르면, 서정적인 시에서 전경화되는 것은 주체와 세계의 간격부재 사태일 뿐 주체와 세계의 완전한 동일시가 아니다. 즉, 분열된 주체와 통합된 세계의 상호침투, 절대적 주체와 과편화된 세계의 상호침투 등 다양한 만남의 가능성성이 개시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주체에 의한 대상의 타자화, 대상에 대한 주체 자신의 타자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표면적으로는 정조를 매개로 텍스트 안에 통합되어 있기에 주체와 세계 사이의 균열이 선명하게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서정적인 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정적인 시에서 주체와 세계의 만남은 상호침투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물과 밀가루가 섞여서 반죽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경우,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경계를 보존하는 경우, 소금이 들어간 물처럼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흡수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차이가 생성되는 경우 등 주체와 세계의 상호침투는 그것의 질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관계 형성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다. 이는 서정적인 시에서 타자 경험의 가능성은 주체와 세계 사이의 구체적인 교류 방식, 또는 주체가 세계 속에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출 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는 모든 서정적인 시가 독자에게 타자적인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정적인 시에서 보다 두드러질 수 있는 타자 경험의 특성이 있으며, 이는 독자의 능동적인 이해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나’와 유사한 대상을 ‘우리’로, 나에게 이질적인 대상을 ‘타자’로 쉽게 상정하곤 하지만, 타자 경험의 계기가 풍부한 서정적인 시에서 그러한 만남의 일상성과 보편성은 새로운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수도 있다. “통합과 일체를 말하는 서정시가 많으나, 그만큼 많은 것이 분리와 소외를 말하는 서정시다. 서정이 어떻게든 세계를 주체의 표상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통합적이든 분열적이든 세계는 표상된 주체이며 주체는 표상된 세계로 드러날 것이다.”(권혁웅, 2010: 133)

각도에서 문제시될 수 있다. 주체와 세계가 불분명하게 얹혀 있는 세계에서도 각자의 타자성이 소거되지 않는 사태가 있음이 그러한 시를 통해 예시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자가 서정적인 시를 통해 타자를 경험한다는 것은 독자 자신의 일상적인 타자 경험의 공백이나 한계를 체감하게 하거나 전복시키는 ‘예외 상태’¹⁵⁾들에 대해 새롭게 발견해 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이 시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정적인 시에서 주체와 세계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얹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정적 사태의 세부적 특성을 읽으려는 독자의 의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II.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 방향

2장의 논의에 기초할 때, 시에서의 타자 경험은 기본적으로 ‘주체와 세계의 상호침투’ 현상이 환기시키는 특수한 사태¹⁶⁾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시 읽기의 과정에서 타자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대상은 독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에서의 타자 이해는 주체와 세계의 상호침투 현상이 환기시키는 타자적인 요소들을 발견, 해석,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타자적인 것에 대한 독자의 관심, 민감성, 선입견 등에 의해 견인되는 것이다.

15) 예외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 언젠가 법칙이 될 어떤 것이면서, 전체성 혹은 공통적인 것 속에 통합되지 않는 비(非)부분 끝내 잉여로 남겨지는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 즉, “예외는 체계에 포함되는 동시에 배제되는 관계, ‘포함된 배제’의 관계적 상태”(신진숙, 2010: 13)를 의미한다.

16) 이하에서는 이를 서정적 사태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독자가 가설적으로 상정한 타자와의 상상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 아울러 타자적인 것에 대한 독자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감수(感受)를 요구한다는 점은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을 설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조건이 된다. 아울러, 독자의 타자 이해 과정은 텍스트 변인과 독자 변인이 교류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교육적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성장 및 사회문화적·윤리적 가치로 정향된 이해의 과정이 보다 의미를 갖는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학습자가 시를 통해 타자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 학습자 자신과 타자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텍스트 선정의 교육적 맥락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은 독자에 따라 시 텍스트를 매개로 한 타자 경험의 편폭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동일한 시라 할지라도 언어 속에서 타자적인 요소들을 풍부하게 감지할 수 있는 독자가 있는 반면,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한 독자에게 전적으로 타자적인 것이 다른 독자에게는 그 자신의 사태에 속하는 것일 수 있다. 즉, 텍스트와 독자는 진공 상태에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속하는 변인과 독자에 속하는 변인 사이의 복잡한 교호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간 문학능력 차이가 전제되는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타자적인 것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풍부하고, 텍스트의 질적 특성이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타자 경험을 담보하는 텍스트, 즉 타자 이해를 위한 텍스트 내·외적인 맥락적 변인들을 풍부하게 갖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일차적 관건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우리 문학사에서 본격적인 ‘한센인 시문학’을 창작한 최초의 작가라 할 수 있

는 한하운의 시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하운의 시에서 독자의 타자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하운의 작품은 ‘사회적 타자’로서 한센인의 경험을 재현한다. 한센병¹⁷⁾은 피부나 호흡기 등을 통한 한센간균(Mycobacterium leprae)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피부, 말초신경계, 상기도 점막 조직의 변형을 수반하는 질병이다.(질병관리본부, 2016. 7. 14.) 잠복기가 길어 감염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경과 외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한센병의 특성은 오랫동안 한센인에 대한 비한센인의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¹⁸⁾

민간 차원의 차별적 인식과 더불어, 제도 차원에서는 반인권적 조치가 자행되었다. 강제 격리, 노동 착취, 단종 조치, 폭력에 대한 묵인, 집단 학살 등의 제도적 폭력¹⁹⁾ 속에서 한센인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존속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한센병의 실상에 대한 의학적 이해의 진전과, 치료법의 발전,²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의 발달 및 관련 법안의 제정

-
- 17) 한센병(Hansen's disease)은 나병, 문둥병 등으로도 불린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한센병은 그 원인균을 최초로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G. H. A. Hansen)의 이름을 딴 것으로, 비하나 혐오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센병을 앓는 환자를 ‘한센인’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18) ‘문둥이’와 같은 일상에서의 비하적인 표현, ‘천형(天刑)’으로 대표되는 미신적인 발병 원인 진단, ‘어린이의 간을 먹으면 완치한다’는 그로테스크한 속설 등은 이러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부정적 소문의 유포는 한센인에 대한 비한센인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였다.
- 19) 소록도 생생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요 인권침해는 강제수용, 강제노동, 강제저축, 단종 및 낙태수술, 기아와 의식주의의 결핍, 환자규칙과 징계검속에 의한 인권유린,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신사참배, 시신해부 및 화장, 약물에 의한 죽음이 있다. 1945년 이후에는 10여건 이상의 집단 학살, 오마도 간척 사업의 강제 이관, 강제격리와 강송, 정관수술을 전제로 한 부부동거제 등 출산·양육·교육관련 인권 침해, 한센인 시설 형성과정의 인권침해, 정착촌의 인권침해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5)
- 20) 오늘날 한센병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다제화학요법(Multidrug Therapy)에 따라 빌병 초기에 치료 시 신경손상의 후유증이 전혀 남지 않고 완치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2~5명 정도의 신규 환자만 발생하는 감염 위험이 극히 낮은 질병에 속한다.

에 힘입어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사회적 편견의 무비판적 수용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폭력의 가능성은 존재한다.²¹⁾ 즉, 한센인의 ‘사회적 타자화’는 여전히 그 극복을 요하는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한센인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지속적인 타자화 과정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는 점, 여전히 그들의 실상과 비한센인의 인식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한센인에 대한 잠재적인 차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되어야 할 타자’로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타자로서 한센인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자칫 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특정한 방향으로만 경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하운의 시는 1950년대라는 시대 상황과의 조우를 통해 굴절된, 한하운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하운의 자전적 기록에 따르면,²²⁾ 그는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 쌍봉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한태영(韓泰永)이다. 이리(裡里)농림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6년 봄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한센병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일본 동경의 세이케이(成蹊) 고등학교, 중국 북경대학교 농학원 등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1943년부터는 함경남도 도청 축산과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하던 중, 1946년 함흥학생데모사건에서 혐의를 받아 형무소에 수감된 후 고초를 겪고, 치료약을 찾기 위해 수차례 고향과 서울을 오가다 1948년 최종적으로 월남하게 된다. 과란만장한 그의 생애 중 서울에서의 유리걸식 생활은 생명의

21) 1992년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당시 ‘아이들을 죽여 마을 사람들이 약으로 썼다’는 거짓 제보를 믿고, 음성 한센인 정착촌인 칠곡농원에 대한 언론의 선동적 보도와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진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22) 연보는 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편(2010) 참조. 한하운의 학력과 행적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내용이 많다.(최원식, 2010)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 줄 확실한 증거가 밝혀진 바 없으므로 공식적인 연보에 따르기로 한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된 것이었다. 그 와중에 틈틈이 문학 수업을 해온 결과로 쓴 시들을 다방 등에서 팔아 연명할 수 있었고, 박용주 등의 문인들과 교우하던 중에 1949년 4월,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한 잡지인 『신천지(新天地)』에 시 13편을 수록하며 등단하게 된다.

한하운의 등단 과정에 대해서는 증언들이 엇갈려 확실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²³⁾ 그의 시를 게재하는 데 당시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서울시 지부 예술과의 지하운동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시인 이병철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이병철은 한하운의 시에 대한 최초의 평문(「한하운시초를 염으면서」²⁴⁾)에서 그의 시가 일본의 대표적 한센인 문학 작가인 호조 타미오(北條民雄)²⁵⁾의 문학보다 높은 수준의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있다고 상찬하였다.(한하운, 1953: 67) 당시까지의 한센인 시 문학의 출판이 전무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²⁶⁾ 비록 실명이 아닌 아호를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하운의 등단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하운은 분단 전후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한센인’, ‘인텔리’, ‘월

-
- 23) 이병철은 『한하운시초』 초판에 수록된 발문에서 한하운이 각설조로 구송하는 시를 이따금 만날 때마다 받아온 것으로 회고하고 있으나(한하운, 1949: 68-69), 『한하운시초』 재판에서 조영암은 소설가 최태웅의 목격담에 따라 한하운이 당시 낡은 수첩에 기천편의 시를 써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후일 『한하운시초』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한하운, 1953: 83) 한하운 스스로는 「나의 시작 수업」이라는 글에서 찢어진 종이에 연 손을 불어 가며 쓴 10여 편의 시를 『신천지』에다 투고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편, 2010: 511)
- 24) 참고로 이 글은 이병철이 『신천지』에 게재한 것을 『한하운시초』를 간행하면서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 25) 호조 타미오의 본명은 시치조 고지(七条晃司)이다. 1936년, 한센인 요양소의 입소 경험을 다룬 단편소설 『생명의 초야』를 발표하면서, 제2회 문학계상을 수상하는 등 명성을 얻게 된다. 발표 당시에는 ‘생명’ 그 자체를 형상화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한센인 환자의 특수성에 함몰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1937년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23세의 젊은 나이로 요양소에서 사망하였다.(이지형, 2016: 77-80)
- 26) 한하운 이전 한센인 문학의 사례로는 무명생(無名生)의 장편소설 『헬루록』(『신동아』, 1933.11-1934.7), 심승의 장편소설 『애생금』(『신천지』, 1946.6-1947.4)이 있다.

남인', '부랑자', '시인'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며 살아낸 독특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한하운의 작품은 작가의 이러한 경험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센인에 대한 일면적인 이해를 넘어 독자의 다양한 관계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한하운 이후의 한센인 시문학이 대체로 한센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문예지에서 소통되고 말았던 반면, 한하운의 시는 당대 문단의 관심을 받았고,²⁷⁾ 일반 독자들에게 판매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해방 후에는 일반인 대상의 시 감상 지도서나 대학교재 등에서 대표적인 서정시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²⁸⁾ 이런 호의적인 반응에 힘입어 그의 시작품은 한센인의 경험을 비한센인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한하운의 작품은 비한센인들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해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문화빨치산'의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문단 내 사상 검열의 과정에서 한하운의 작품은 소수자에 대한 각종 편견과 의심으로 얼룩졌고, 이는 이후 한하운의 작품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하운의 시는 한센인 작가의 고유한 감성과 당대 독자들의 수용 사이의 다양한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하며, 학습자들이 본인의 타자 이해 내용을 성찰하고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매개 텍스트(mediating

27) 1949년에 열린 한 문학지상좌담회에서 최영해는 『한하운시초』와 심승의 『애생금』에 대해 “두 작품이 우수하고 우리 마음을 찌를을 느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경향신문, 1939. 8. 15.) 조연현은 1949년의 시단을 회고하는 기사에서, 김춘수, 구상 등과 함께 한하운의 이름을 거론하며 “새로운 세대의 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조연현, 1949. 12. 28.) 노천명 또한 한하운의 제2시집 『보리파리』 출간 후 “시를 공부하는 이들, 애호하는 이들 또 인생을 알려는 이들에게 서슴지 않고 나는 시집 ”보리파리“를 권한다.”고 상찬한 바 있다.(노천명, 1955. 6. 14.)

28) 1950~70년 사이에 한하운의 시가 수록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 감상 지도서 -〈개구리〉(장민영, 1953), 시선집 -〈보리파리〉(정신사 편집부, 1958), 〈나는 문둥 이가 아니을시다〉(석용원, 1959), 대학교재 -〈보리파리〉(김성배 · 김덕환 · 이상보, 1964).

text)²⁹⁾들을 풍부하게 갖는다. 이는 바람직한 타자 이해의 방향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탐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2. 한하운의 시에 대한 독자의 타자 이해 계기

대상관계 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에 따르면,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극히 제약된 자폐 상태에서, 타자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공생 상태를 지나, 점차 타자와 자신의 차이를 인식하고 타자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체가 자기표상의 좋은/나쁜 측면과 타자표상의 좋은/나쁜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대상항상성을 발달시킬 때, 온전한 대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Hamilton, 2007)

이러한 관점을 참고하여, 여기서는 시 읽기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가 ‘타자의 초접화’, ‘타자 정체성의 구체화’, ‘타자에 대한 가치평가의 조정’의 계기들을 포함하는 가운데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³⁰⁾ 한하운 시에 대한 비평, 시인의 시 해설, 일반 독자의 반응 텍스트들 및 유관 수기를 사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특이성 지각에 근거한 타자의 초접화

독자가 시 텍스트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을 때, 시에서 발견 가능한 타자란 독자와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타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에

29) “시에 대해 독자가 구성하는 상상적 세계를 보완하거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텍스트”를 의미한다.(강민규, 2018: 51)

30)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를 통한 학습자의 타자 이해는 과정적,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제시된 계기들 또한 일회적이고 순차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리며 점진적인 타자 이해의 심화를 이끄는 것임을 밝혀둔다.

대한 독자 자신의 선이해를 반성하며, 독자 자신의 관점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성들을 감별하는 과정, 다시 말해 텍스트에 동기화(synchronized)된 독자가 타자적인 것의 수용을 위한 최소한의 비평적 거리를 확보해 가는 과정은 시에서의 타자 이해를 위한 일차적인 조건이 된다.

즉, 시에서의 타자 이해는 독자 자신과는 다른 존재에 대한 감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 텍스트를 이해해 가는 가운데 독자와는 다른 특이성(singularity)을 갖는 언어적 대응에 주목하며 타자의 형상을 구축하는 과정, 즉 타자의 '초점화(focalization)³¹⁾' 과정에 해당한다. 한하운의 시에서는 신체 상실의 경험을 재현하는 표현들이 독자가 타자의 초점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 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손가락 한 마디〉(1949) 부분³²⁾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면 전라도 길.

-〈전라도길 - 소록도(小鹿島)로 가는 길에〉(1949) 부분

-
- 31) 심리학에서 초점화란 심상이나 개념이 구성되는 서로 다른 층위들을 통합해 내는 과정을 가리킨다.(최지현, 2014: 50)
- 32) 이하 시 전문은 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편(2010)에서 인용하되, 필요시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한다.

한센인은 한센간균이 피부와 말초신경계를 손상시킴에 따라 비한센인으로부터의 스티그마(stigma)³³⁾를 야기하는 신체상의 변화가 가시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성의 영역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데, 이러한 병세의 악화에 따른 신체 상실의 순간은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으로써 강렬한 불안과 슬픔 등의 복합적인 정서를 수반하는 사건으로 경험된다. 한하운의 시는 이러한 신체 상실의 그로테스크한 순간을 언어로 재현함으로써, 비한센인 독자와의 일상적인 신체 감각의 거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이면에 함축된 감정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한편, 한하운 시의 초기 비평에서부터 언급되듯이 그의 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센인의 경험을 비교적 담담하게 재현한다는 점이다. 당대의 문단에서 한센인에 대한 문학적 재현 경험은 부족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시 <문둥이>(1935)³⁴⁾에 대한 서정주의 술회를 참조할 때, 한센인에 대한 문인들의 이미지는 속설에 기초한 어렵잖은 것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³⁵⁾ 이런 상황에서 한하운의 시의 '객관적 태도'는 기존의 한센인에 대한 문학적 재현과 차이를 갖는 특징으로 인식되었다.³⁶⁾

33) 스티그마는 어원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노예나 죄수의 몸에 찍는 표시를 의미하였다. 고프만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 사회정체성(a actual social identity)'이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가상적 사회정체성(a virtual social identity)'에 어긋날 때, 인식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탈된 속성을 스티그마로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기형, 성격적 결함, 인종·민족·종교적 문제가 포함된다.(Goffman, 2009: 13-16)

34) 전문은 다음과 같다.(서정주, 2015: 33)

해와 하늘빛이 / 문둥이는 서러워 // 보리밭에 달 뜨면 / 얘기 하나 먹고 // 꽃처럼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35) “나한자들이 얘기를 잡아먹는다는 풍속은 과거 왕조시대의 못된 유풍일 텐데, 내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나한자가 보리밭에서 얘기를 잡아 먹는다 어찌고 해서 그것이 시에 표현되었다.”(새빛, 1964. 7. 8.: 25.)

36) 이에 대해서는 이병철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같은 문동 환자의 문학일지

‘신체 상실’의 경험이 비한센인들의 ‘정상성’의 감각에 포섭되지 않는 특이성을 갖는다면, 그러한 경험을 재현하는 객관적 태도는 한센인 문학에 대한 비한센인 독자의 일반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특이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³⁷⁾ 즉, 한하운의 시는 한센인이라는 특정한 존재의 고통스런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포착하는 냉철한 시선의 생경한 조합을 독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한센인’ 집단 내에서만 소통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태를 상기하게 하는 것이다.

“1950년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분단의 와중에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와 자신의 ‘손가락’, ‘발가락’ 같은 혈육과 집과 고향을 잃은 시대였다. 신체의 일부처럼 소중한 것들이 자신에게서 떨어져나가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 앞에서 통곡할 수도 달리 어찌해 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한하운의 시에서 그려진 문동이의 고통은 충격을 넘어 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과 보편적 상황의 환기라는 효과는 시인 자신이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시화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김신정, 1996: 252)

이러한 타자적인 요소와 보편적인 요소의 중첩 가능성성이 한하운의 시가 갖는 초점화 계기의 한 축이라면, 한센인의 일상적 경험과 ‘재현된 한센인’의 허구적 경험의 중첩 가능성은 또 다른 축의 초점화 계기를 이룬다.

라도 여기 하운의 문학은 적어도 어떤 역사적 현실 앞에서 건강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부정(否定)한 그것을 다시 부정해버린 다음의 높은 경지의 리얼리티를 살린 데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한하운, 1949: 67-68)

37) 『한하운시초』에 대한 다음의 광고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센인 문학에 대한 독자의 일반적 기대는 ‘저주’로 표현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따른 절절한 ‘슬픔’의 정서를 공유하는 데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독과 자학과 저주에서 참을 길 없는 울음. 구천에 사모치는 ○절한 생명의 노래! 뉴 방랑의 걸객이 이 책의 저자임을 짐작하리요. 화제꺼리에만 끄치지 않는 문단유사 아래의 걸작!” - ○는 판독이 어려운 글자(조선중앙일보, 1949. 5. 27.)

“1연의 표현으로 수많은 나환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는데…… 실지 머리를 긁는 정도로서 나환자의 언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언 손가락은 불원간 상처가 되어 썩어 떨어지는데 (…중략…) 사회 도의에 대한 항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는 분노의 뜻에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 것이다.(한하운, 1965: 59)

〈손가락 한 마디〉의 시작(時作) 과정에 대한 시인의 술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하운 시의 ‘한센인 주체’는 실제 한센인의 경험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를 작가의 특수한 예술적 의도 하에 재구성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비한센인 독자가 한센인의 고통과 정서를 보다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면서, 동시에 한센인 독자들이나 한센인에 대해 익숙한 독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거리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손가락 한 마디〉의 신체 상실 묘사에 대한 한센인들의 항의는 이 시가 한센인들의 신체 상실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이해된다. 한편, 신체 손상에 따른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의도적인 신체 절단을 요구하는 중증 한센인들에게 〈손가락 한 마디〉의 신체 상실의 순간은 지나치게 ‘담담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충분한 재현으로 인식될 수 있다.³⁸⁾

이처럼 한하운 시의 ‘한센인 주체’에 대한 독자의 초점화는 한센인 특유의 경험에 대해 독자 자신의 주관과 경험을 투사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³⁹⁾ 이는 한하운 시의 한센인 주체가 특수성과 보편성, 사실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씨 할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당신 발 가락을 잘라 달라고 조르신다. 외과에 가시라고 해도 외과에서는 안 잘라준다고 굳이 나 보고 해 달란다. 마지막 하나 남은 발가락 때문에 가래톳이 서고 노상 상처가 나서 견디기 힘드신 모양이다.”(서판임, 2000: 281)

39) ‘신체 상실’ 경험 외에도 화자 자신을 ‘문둥이’로 호명하는 경우(〈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화자 자신을 이질적이고 무의미한 존재로 비유하는 경우(〈나〉) 등도 ‘한센인 주체’의 초점화 계기를 제공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독자의 능동적 상상이 제약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한센인 주체 외의 다른 이해 가능성의 폭넓게 열려 있다는

성과 허구성의 축의 교직 속에서 그 특이성을 발현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하운 시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타자 경험 또한 특정하게 초점화된 ‘한센인 주체’와 시적으로 재현된 세계의 상호침투 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따라 그 편폭을 달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은 학습자의 타자 경험이 보다 풍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다각도의 초점화 과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하운 시의 경우, 시인, 한센인, 비한센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임의적으로 채택하여 ‘신체 상실’ 경험의 언어적 재현과 같은 특이성을 갖는 표현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는 방안, 사회적 타자로서 한센인에 대한 의학적 설명 및 그들이 처한 역사적·제도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 텍스트에 제시된 특이성을 갖는 표현을 보다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그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2) 서정적 사태에의 몰입을 통한 타자 정체성의 구체화

타자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타자를 초점화하는 과정이 타자 이해의 출발점이라면, 그러한 타자가 시에서 어떠한 정서적 대응을 보여 주고 있고, 이러한 정서적 대응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즉, 주체와 세계의 상호침투 상황 속에 타자를 위치 짓는 것은 시 읽기에서의 타자 이해의 중핵적인 과정이 된다. 독자의 관점에서 이는 텍스트가 환기시키는 서정적 사태에 대해 몰입하는 가운데 타자의 정체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한하운의 시에서 주체의 주된 정서적 대응은 한센인으로서 경험하는 부당함, 절망감, 서러움, 고독감과 관련이 깊은데(고봉준, 2017: 237-268) 이는 주체와 세계의 만남이 그다지 화해로운 상황에 놓여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화의 상황은 ‘정상성’의 경계선상에서 방황하는 주체의 모

점에서, 그 교육적 효용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할 것이다.

습으로 제시된다.

아 꽃과 같은 삶과
꽃일 수 없는 삶과의
갈등 사잇길에 짤룩거리며 썼다.

잠깐이라도 이 낯선 집
추녀 밑에 서서 우는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삶〉(1949) 부분

근대 이후 한센인의 격리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로, 한센인이 된다는 것과 일상적인 삶으로부터의 격리 및 배제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 왔다.⁴⁰⁾ 이런 맥락에서 〈삶〉의 한센인 주체가 느끼는 ‘서러움’은 가족, 교육, 의식주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로부터의 소외됨으로써 ‘꽃과 같은 삶’이 한 순간에 ‘꽃일 수 없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상성’의 영역에 속해있던 기억을 완전히 떨쳐 보낼 수 없고, 오욕과 고난으로 가득한 한센인으로서의 삶 또한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갈등은 사잇길에 ‘짤룩거리며’ 서 있는 화자의 서글픈 자기 인식으로 표상되는데, 이는 비한센인들과 같은 거리를 걸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고오 스텁〉),⁴¹⁾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단지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40) 한센인들은 근대 이전부터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부랑하는 존재로 살아왔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수용소, 요양소라는 근대적 제도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식민지 권력에 의한 구라사업(求癩事業)과 민족계 언론을 통한 한센인의 타자화 담론의 확산을 통해 한센인들은 단지 불운하고 가여운 존재가 아니라 국가적 수치라거나 일반 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3)

41) 빨간불이 켜진다 / 파란불이 켜진다. / 자동차 전차 할 것 없이 / 사람들은 모두들 신호를

죄인 취급을 받는 데 따른 어처구니없음(〈별〉)⁴²⁾ 등으로 변주되며 ‘인간 폐업’⁴³⁾의 편린들을 중언한다.

서정적인 시가 그와 똑같은 것이 되풀이될 수 없는 특유한 것, “완연히 새롭고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정조의 세계”(Steiger, 1978: 81)를 표현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한하운 시에서의 한센인 주체의 정서적 대응 또한 작품 개별적인 특수성, 고유의 질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센인 주체와 특수한 시·공간의 만남이 제시되는 작품들에서 그러한 면모는 두드러진다.

갈대꽃 위에

돌아가신 어머님 환영이 쓰러지고 쓰러지곤 한다.

추석 달은 밝은데

내 조상에

문둥이 장손은 차례(祭禮)도 없다.

-〈추석(秋夕) 달〉(1955) 부분

눈이 오는가.

나요양소

기다려 섰다. // 나도 의젓한 누구와도 같이 / 사람들과 사람들과 사람들 틈에 끼어서 / 이 네거리를 건너가보는 것이다. // 아 그러나 / 성한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 앞을 다투어 면 저 가벼린다. -〈고오 스톱〉(1949) 부분

- 42) 옛날부터 / 사람이 지은 죄는 /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 그러나 나를 /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놓고 // 죄명은 문둥이…… / 이건 참 어처구니없는 벌이올시다. -〈별〉(1949) 부분
- 43) “나는 ‘문둥이’란 이름으로 인간 대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인간 폐업을 당하고 있다. 끝내는 인간된 자랑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벌써 휴지 같은 것이 되고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한하운, 1965: 3)

인간 공동묘지에
함박눈이 푹 푹 나린다

추억같이……
추억같이……

고요히 눈 오는 밤은
추억을 견뎌야 하는 밤이다.

-〈신설(新雪)〉(1977) 부분

온 친지가 모여서 조상의 넋을 기리고 화목을 다져야 할 명절에 한센인 주체는 장손임에도 함께 할 수 없으며 그저 갈대밭을 바라보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곱씹을 뿐이다. 이처럼 이 시에서 한센인 주체의 소외감은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사이에서 그 구체적 의미를 획득한다. 일상과 공간적 단절을 의미하는 ‘나요양소’ 또한 유사한 장치라 할 수 있는데, ‘한센인 주체’가 보여주는 인고의 태도는 ‘공동묘지’로 비유되는 인간적 관계가 소실된 공간,⁴⁴⁾ 소외감에 대한 상상적 극복 가능성마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비롯되는 절박한 정서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자가 초점화한 타자의 정체성은 시에 재현된 세계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됨으로써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한편, 한센인 주체가 등장하는 개별 시편들의 서정적 사태는 한센인이

44) 아래의 증언과 같이 ‘나요양소’에 대한 한센인들의 인식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나요양소’에서 강제격리, 강제노동, 단종수술 등 한센인들의 인간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비추어 볼 때, ‘인간 공동묘지’라는 비유가 갖는 일반적 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요양소에 – 인용자) 올 때는 난 하나님도 안 울었어요. 병 낫아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다 우는데, 난 눈물도 하나도 안나, 좋으니까. 병 낫아 온다니까.”(국사편찬위원회, 2005: 65)

처한 억압적 상황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속에서 그 고유한 의미가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정적 사태에 대한 독자의 몰입 과정은 그것의 지평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실상에 대한 확장적 이해를 필요로하게 된다.

앞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하운 시에서 한센인 주체가 대면하는 세계는 아플 때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열리지 않는 문〉⁴⁵⁾),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리라꽃 던지고〉⁴⁶⁾)과 같이 '정상인'에게 일상적으로 허용된 일들이 지극히 낯설고 어려운 일로서 경험되는,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환경들이다. 즉, 한센인 주체는 정상인과 같은 사회에 속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경계로 추방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가 개별 시편들의 상황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은 한센인 주체가 속한 경계적 세계의 억압적 실상을 풍부하게 재구성해 보는 계기가 되며, 이에 비추어 개별 시편들에 나타나는 서정적 사태의 의미 또한 보다 선명하게 인식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한센인 주체와 교류하는 경계적 세계를 풍부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은 한하운이라는 한 시인의 시작(詩作)을 넘어 저마다의 관점에서 한센인 주체를 통해 서정적 사태를 형상화한 다른 작품들과의 연결을 모색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즉, 한하운이라는 한 작가의 관점에서는 세밀하게 포착될 수 없었던 서정적 사태를 표현한 작품들, 이를테면 단종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이 수술실에서 경험해야 했던 섬뜩한 공포를 묘사한 윤지영의 〈인간 제물〉(1959),⁴⁷⁾ 한센병력으로 인해 미혼모가 되어 자식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던

45) 내과 외과 소아과 / 치과 신경과 피부과 / 병원도 많기도 한데. // 그러나 병원 문은 집집이 닫혀 있다 / 약국이란 약국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 문〉(1949) 부분

46) 그러나 의학을 전공하는 양에게 / 이 너무나도 또렷한 문둥이 병리학에 // 모두가 부조리한 것 같고 /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리라꽃 던지고〉(1955) 부분

47) 소록도 / 외과실에 모여든 / 단종수술을 기다리는 문둥이가 / 옷자락을 적시며 구슬을 냄새로 / 살결에 스며드는 피 비린내를 풍긴다 //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 선조의 혈맥을 차단 하려는 / 육박한 사실에 최선을 빌고져 / 기막힌 원한을 씹으며 / 초조를 안고 기다리며 썼다 –윤지영, 〈인간제물 – 단종수수술실 위에서〉 부분(윤지영, 1959: 48-50) 한

어머니의 슬픔을 표현한 이말란의 〈아가야〉⁴⁸⁾와 같은 작품들은 비록 개별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는 저평가될 수 있더라도, 독자가 한센인 주체가 처한 억압적 세계의 실상을 확장하기 위한 비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매개 텍스트들이 된다.

3) 수용사적 성찰을 통한 타자에 대한 가치평가의 조정

타자란 주체와의 차이를 통해 성립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는 결국 나와 다른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 된다. 문제는 타자가 독자의 경험 역의 한계에 속하는 존재로 인식될 때, 다시 말해 타자가 '동질적인 우리'(동일자)가 속하는 안정된 질서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될 때 그들을 배타적으로 매도하거나 거부하는 태도가 형성되기 쉽다는 데 있다.

타자에 대한 폭력은 극단적인 경우 동일자의 규범에 대한 타자 관점에서의 전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외부로부터의 강요된 고통겪기(suffering)만을 유일한 선택지로 남겨 놓음으로써(Butler, 2013: 17) 동일자적 질서에 대한 타자의 소통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데, 한센인에게 가해진 강제 격리나 집단 살해와 같은 것들이 그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하운에 따르면 윤지영의 본명은 양남(良南)이며 해방 후 월남하여 소록도에 입원해 있다가 의학강습소에서 강습을 받았다. 부평 성혜원에서 요양하는 중 자치회 의무부장을 다년간 역임하며 시작에 전념하였으며, 1959년 10월 시집 『축복』을 상자하였다. 그 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1963년 향년 42세에 고열로 생을 마감하였다.(한하운, 1965. 2.: 18)

- 48) 아가야 보고 싶구나 // 핏덩이 너를 등에 업고 / 혼해탄을 건너 이국만리에 가서 / 너를 버리고 뒤돌아 설 때 /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 / 눈물이 앞을 가려 / 눈물자죽만 남았단다. 이 말란, 〈아가야〉 부분(김성리, 2013: 258-260) 이말란은 1927년 울산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한센인 여성으로 인체대학교 교수 김성리를 만나 자신의 생애를 구술하는 가운데 11편의 시를 함께 지었다. 인용한 시는 이말란이 19세인 1945년 그녀가 교제하던 일본인 남성 마쓰시타와 헤어지고 미혼모인 상태로 아들을 낳은 후, 도저히 아이를 기를 수 없어 1946년 제일한국인에게 아들을 입양 보냈을 때의 기억을 시로 창작한 것이다.

맥락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는 타자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타자에 대한 무분별한 편견과 음해를 지양하는 해석의 윤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해석 윤리의 방향성을 ‘타자의 이상화’와 ‘타자의 평가절하’에 해당되는 사례를 검토하는 가운데 살펴보고자 한다.⁴⁹⁾

주지하다시피 한하운의 시의 한센인 주체는 다수자들에 의해 차별받고 격리되어 온 사회적 타자를 표상하기에, 그가 대면하는 세계 또한 역사적 실감을 갖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하운 시의 한센인 주체는 허구적 존재를 넘어, 실존하는 주체로서의 작가의 소수자적 삶과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특징을 갖는다. 나아가 한센인 시인으로서 작가의 삶이 독자가 그의 시를 대할 때 “가장 강하게 대상을 압도하는 조건으로 작용”(김신정, 1996: 242)하는 것은 한하운 개인의 비극적인 삶의 궤적이 시 텍스트의 한센인 주체가 표명하는 정서와 호응하는 바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건이 독자가 한센인 주체의 정체성을 보다 수월하게 구체화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작가의 삶과 시 텍스트에 표현된 서정적 사태를 무분별하게 혼동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데 있다.

① “그러던 하운에게 어느 실비나리던 명동거리에서 한 옛날의 애인 M을 만났다. 하운은 거지 복색을 하고 홀금홀금 그 여인을 치어다 보았다. 분명히 M이 확실하다. 하운은 수첩에서 「여인」이라 제(題)하여 …중략…) 어느 모퉁이에 걸어두는 그 여인을 물끄럼이 바라보다가, 확실히 자기가 또 문동이였다는 엄연한 실증 앞에 뜨거운 눈물이 말을 적시었다.” - 「何雲의 生涯와 詩」(한하운, 1953: 83-84)

49)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식이 분화하는 가운데 나 타나는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타자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타자를 과도하게 신비화하거나 악마화하는 극단적인 해석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용어를 차용하였다.(Hamilton, 2007: 123)

② “하운은 좋은 애인이 있었다. (...중략...) 그러나 진작 하운이 돌아 왔을 땐, 그는 벌써 천하의 문둥병자가 된 때였다. (...중략...) 하운은 이렇게 눈물을 씻고 추억을 삼키며 떠나야 했다.” -「하운의 인간상」(한하운, 1953: 89-90)

한국전쟁 후에 간행된 『한하운시초』의 재판 서문에 조영암(①)과 박영(②)은 한하운의 생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의 시에 대한 단평을 남겼다. 특징적인 것은 두 평자 모두 한하운 작품들에서 한센인 주체가 경험하는 슬픔의 원인을 현실에서의 한하운이 경험한 애절한 사랑과 이별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하운이 자서전 『고고한 생명 – 나의 슬픈 반생기』(1958)에 기술한 바 있는 연인 R을 염두에 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한하운은 자작 시 해설집에서 월남 과정에서 헤어져 생사를 알 길 없는 R에 대한 속죄 의식에서, 그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안락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쓴 것으로 술회하고 있는데,(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편, 2010: 608) 『한하운시초』의 재판이 빌간되던 시점은 전후에 아직 작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던 시점이라 평자들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바는,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시인의 삶에 대한 독자의 공상적 선입견이 시적 상황을 설명하는 일차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작품 자체보다 시인의 삶에 대한 정보를 우선시하는 비평 태도의 관습적 적용은 독자가 한센인 주체의 타자성을 과도하게 신비화하거나 현재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한센인 시인이 쓴 시는 한센인 시다워야 한다’는 강박적 선입견으로, 아래의 사례들은 이런 관점에서 각각 한센인으로서의 시인의 시각을 절대화하거나, 시적인 상황 일체를 한센인의 경험으로 환원시키는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바라보는 인간세계는 그 속에서 휩쓸리는 우리와는 보는 면이 다를 것이고, 생각하는 바가 또한 전연 다른 각도에서 그릴 것이다. 성한 사람이 가져 볼

수 없는 인생관 세계관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그의 시 또한 다른 어느 시인과도 공통점이 없는 특이한 글체이다.”(이영자, 1955: 83)

“시인은 개구리가 되어 문둥이인 자기 자신의 회포를 푸는 게 아닐까? 이와 같은 유의 작품으로 <부엉이>를 들 수 있다. (...중략...) 이 부엉이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다. 아닌 게 아니라, 문둥이로서 부엉이가 낮에 당하는 수모 이상의 수모를 당했으리라.”(박준, 1976: 259)

이 지점에서 독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타자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를 지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리처드 커니(Kearney, 2004: 28-29)는 타자가 너무 초월적이 되면, 타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접촉 가능성이 상실될 수 있고 반대로 타자가 지나치게 내재적이 되면, 전체화하는 우리 자신과 타자를 서로 구분하기 힘들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양자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시도로 자아성과 낮설음의 타당한 의미가 공존할 수 있는 타당한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시 읽기의 과정에서 타자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타자의 모든 것을 타자화하는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 읽기의 과정에서 독자의 타자 이해는 타자에 대한 독자 나름의 가치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일단락되며 여기에는 수용적 평가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평가도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떤 방향의 평가이든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해석에 기반한 평가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타자들에게는 그들의 실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시 읽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독자의 상상적 개입의 여지 및 오독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식적 정당화’⁵⁰⁾는 요구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50) 정당화는 특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그 타당성을 가려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은 타당한 근거라고 하는 기준에 입각한 믿음을 의미한다.(홍병

문제는 외재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 읽기가 이루어지는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 스스로 그러한 인식적 정당화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이 지점에서 한하운 시의 수용사를 비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해석 윤리가 준수되지 않을 때 타자에게 야기되는 폭력적 결과를 1950년 이후의 한하운의 삶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에 출간된 『한하운시초』 재판은 초판의 편자인 사회주의자 이병철의 이름을 지우는 등 불온한 것으로 읽힐 여지를 최소화하며 간행되었으나, 전후 언론과 정치계에서 문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경직된 것이었다. 특히, 1953년은 '정국은 간첩 사건'⁵¹⁾으로 사회 도처에 잠복해 있는 간첩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로, 문화계 또한 소위 '문화 빨치산'이 공작활동을 펼치는 은거지로 의심을 사던 차에, 일부 언론인의 황색 보도를 중심으로 한하운의 시집이 이병철의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쓰인 불온서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당국의 검거 대상이었던 이병철에게 사회적 소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하운의 문학이 공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작품의 내적 문맥을 기준으로 할 때 한하운의 시에서 공산주의적 이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인 및 정치인들은 한하운의 시 전체가 공산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한하운시초』의 초판에 실린 <데모>⁵²⁾가 특히 문제시된다.

선, 2006: 211 - 234)

- 51) 1953년 연합신문, 동양통신 등 언론사에서 활동하던 정국은이 남조선노동당의 중앙특수부 소속의 간첩으로 밝혀진 사건. 한국 전쟁 후 남한에서 발생한 첫 간첩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민족청년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숙청되는 등 정치계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 52) 『신천지』에 수록된 <데모>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뛰어 들고 싶어라 / 뛰어들고 싶어라. // 풍덩실 저 강물속으로 / 물굽이 파도소리와 함께

“동(同) 「시초」의 초판에는 뚜렷하게 「쌀을 달라! 관력(官力)을 달라는 인민의 ○열이 ○○하고」라는 구절이라든지 「데모는 가고 문동이는 서서 울고」라는 구절 등이 수없이 박혔든 것으로 기억되거나와”(이정선, 1953. 8. 13.)

“이 시집을 들쳐볼 것 같으면 백 페이지 넘는 그 시집 가운데에는 「뛰어들고 싶어라 뛰어들고 싶어라 븉은 깃발 깃발 물굽이 치는 거기 뛰어들고 싶어라 목쉰 조선 사람들의 만세 소리」 이러한 등등의 시가 백 페이지에 걸쳐있다 그 말입니다.”(계훈모, 1993: 1099)

언론인과 정치인에 의해 이루어진 <데모>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일부 어휘나 시의 분위기에 대한 왜곡된 기억 및 비논리적인 해석을 기초로 한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한하운 본인이 서울신문사에 직접 나타나 해명하고, 치안국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를바 “한하운 시집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는 상당하여, ‘문단 정화’ 논쟁으로 연결되면서 문단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였고,(정우택, 2014: 174-175) 한하운 개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극적인 반공 서사로 가득한 자전을 통해 재구성하고,⁵³⁾ 작품의 창작 동기를 탈-정치적, 개인사적인 것으로 강박적으로 부기하게 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근

/ 만세소리와 함께 흐르고 싶어라. // 물굽이 제일앞서 깃발 기빨이 간다 / 뒤에 뒤를 줄대어 / 목쉰 조선사람들이 간다. // 모두들 성한 사람들 저이끼리만 / 쌀을 달라! 자유를 달라!는 / 아우성소리 바다 소리. // 아 바다소리와 함께 부서지고싶어라 / 죽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 문동이는 서서 울고 데모는 가고. (한하운, 1949: 179)

53) 한하운의 자전은 월남의 동기로 반북, 반소 논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논란이 된 시 <데모>의 창작 맥락을 반소 운동이었던 합동학생운동으로 특정하고, 문제시된 몇몇 구절들은 이 병철이 임의로 개작한 것으로서 서술하고 있다. 박연희(2017: 211-216)는 이러한 반공 월남 서사의 도움을 받아, 필화 사건 이후 한센인이 반공의 표상으로 재전유되었다고 설명한다.

거 없는 해석에 의거한 편집증적 비판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의 삶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해석이 타자에게 미칠 영향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맷음말

이 연구는 시 읽기의 과정에서 독자의 타자 이해는 과정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독자가 시 텍스트의 타자적 요소를 적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석 과정에서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시의 주된 장르적 특성인 서정성과 타자 이해의 관련성을 살피고, 서정적인 시에서의 타자 이해는 주체와 세계의 상호침투라는 서정적 사태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인 이해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하운의 시를 사례로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시 읽기의 과정에서 타자 이해는 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타자적인 요소들을 섬세하게 감지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특이성의 지각 양상은 타자적인 요소에 대한 독자의 경험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은 타자에 대한 다양한 초점화 가능성과 민감한 지각 가능성을 모두 열어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독자의 타자 이해는 시 텍스트에 형상화된 서정적 사태에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타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체화해 가는 가운데 심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시편에 제시된 주체와 세계 사이의 상호 교류 양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며, 나아가 개별 시편에 형상화된 세계의 배경을 이루는, 보다 확장된 세계 맥락에 대한 이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한, 타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은 타자에 대한 해석적 폭력을 지양해 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타자에 대한 맹목적인 타자화를 지양하는 것, 그리고 근거 없는 해석에 기반하여 타자에 대한 평가적 관점을 형성하지 않도록 인식적 정당화를 의식하며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이처럼 본고는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능동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타자에 대해 알아가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타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고민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에서 타자적인 것이 형상화되는 양상을 사회적 타자로서의 한센인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통해서만 다루었고, 실제적인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을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교육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시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된 타자에 대한 경험을 확충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현대시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시교육의 지향에 비추어 볼 때 시에서 형상화될 수 있는 다양한 타자 경험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타자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시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성장 중인 존재로서의 학습자들이 갖는 인식 및 경험상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그 조정 양상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을 기하는 것으로 논의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9.4.30. 투고되었으며, 2019.5.1. 심사가 시작되어 2019.6.6.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민규(2018), 「현대시 독자의 매개 텍스트 활용에 관한 시 교육적 고찰: 전문 독자의 오장환 시 읽기 양상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1, 47-90.
- 계훈모(1993), 『한국언론연표 III』, 서울: 관훈클럽신영기금연구기금.
- 고봉준(2017), 「세계 상실에 맞선 생명의 영가」, 『사이』 23, 237-268.
- 고봉준·조해옥(2007), 「서정시 이론의 성찰과 모색: '서정' 개념의 이중성과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시학회 제20차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43-57.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인환·박인기·우한용·최병우(2012), 『문학교육론』, (6판), 서울: 삼지원.
- 국사편찬위원회(2005), 『한센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정책』,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권혁웅(2010), 『시론』, 펴주: 문학동네.
- 김대행·우한용·정병현·윤여탁·김종철·김중신·김동환·정재찬(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성리(2013), 『꽃보다붉은울음』, 서울: 알렙.
- 김성배·김덕환·이상보(1964), 『(교양)대학국어』, 서울: 신광.
- 김신정(1996), 「고통의 객관화와 "인간"을 향한 희구: 한하운의 삶과 시」, 『현대문학의 연구』 7, 241-262.
- 김준오(2007), 『시론』, (4판), 서울: 삼영사.
- 김창원(1993), 「시쓰기의 화법과 투사적 시 읽기: 「님의 침묵」을 텍스트로」, 『선청어문』 21(1), 139-162.
- 노천명(1955. 6. 14.), 보리피리 한하운 시집, 『동아일보』, 4.
- 류수열·한창훈·정소연·김정우·임경순·한귀은·서유경·조하연·이민희·최지현·김혜영·오지혜·황혜진(2014), 『문학교육개론 II: 실제 편』, 서울: 역락.
- 문선영(2014), 「타자 지향의 시교육 방향 연구」, 『한국언어문화』 55, 35-60.
- 박수현(2016), 「문학 교과서의 타자 이해 단원 연구: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7, 141-163.
- 박연희(2017), 「한하운 시에 나타난 월남의식과 '문둥이' 표상: 『한하운 시초』(1949/1953)와 『보리피리』(1955)를 중심으로」, 『사이』 23, 207-236.
- 박준(1976), 「보리피리의 고독: 한하운의 생애」, 『明大』 7, 256-263.
- 박현수(2007), 「서정시 이론의 새로운 고찰: 서정성의 층위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0, 259-297.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05),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서정주(2015), 『미당 서정주 전집 1』, 서울: 은행나무.
- 서판임(2000), 『소록도꽃』, 서울: 명작.

- 석용원(1959), 『(현대)학생애송시집』, 서울: 교문사.
- 신진숙(2010), 『윤리적 유혹, 아름다움의 윤리』, 서울: 푸른사상사.
- 우리사상연구소(2001), 『우리말 철학사전 1: 과학, 인간, 존재』, 서울: 지식산업사.
- 유성호(2017), 「서정 논의의 동향과 쟁점」, 『한국근대문학연구』 18(2), 235-258.
- 윤지영(1959), 『축복』, 서울: 인간사.
- 이영자(1955), 「韓何雲의 人間像: 詩集『보리괴리』를 中心으로」, 『學生文壇』 1(2), 83-86.
- 이정선(1953. 8. 13.), 문화정책의 맹점: 빨치산적 출판의 고발을 기(忌)하는 문단과 관련하여, 『태양신문』, 2.
- 이지형(2016), 「일본 한센병문학의 의의와 현재성: 호조 다미오(北條民雄)의 '생명의 초야(いのちの初夜)'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25, 75-100.
- 인천문화재단 한하운 전집 편집위원회 편(2010), 『한하운 전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 작자미상(1939. 8. 15.), 건국과 함께 자라나는 문화지상좌담회: 민족적지성의 방향. 찬(燦)! 문화결실의 이모저모, 『경향신문』, 4.
- 작자미상(1949. 5. 27.), 한하운시초, 『조선중앙일보』, 1.
- 작자미상(1964. 7. 8.), 文學 作品 속의 나병·나환자, 『새빛』 14(10), 25-29.
- 장단영(1953), 『현대시 감상』, 서울: 산호장.
- 정신사 편집부(1958), 『세계명시선』, 서울: 정신사.
- 정우택(2014), 「‘한하운 시집 사건’(1953)의 의미와 이병철」, 『상허학보』 40, 147-184.
- 정호웅(2018), 「이호철의 『逆旅』와 문학교육: ‘타자 이해’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8, 423-448.
- 조동일(1992),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서울: 집문당.
- 조연현(1949. 12. 28.), 구호에서 실천으로 (하) 『경향신문』, 2.
- 질병관리본부(2016. 7. 14.), 한센병,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검색일자 2019. 6. 4.,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6600>.
- 최미숙(2012), 「기호, 해석, 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38, 125-154.
- 최원식(2010), 「한하운과 『한하운시초』」, 『민족문학사연구』 54, 475-501.
- 최인자(2009), 「타자 지향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독서연구』 22, 279-310.
- 최지현(2014), 『문학교육심리학: 이해와 체험에 관한 문학교육적 설명』, 서울: 역락.
- 한하운(1949), 〈데모〉, 『신천지』 4, 179.
- 한하운(1949), 『韓何雲詩抄』, 서울: 정음사.
- 한하운(1953), 『한하운시초』, (재판), 서울: 정음사.
- 한하운(1965), 『황토길』, (4판), 서울: 신흥출판사.
- 한하운(1965. 2.), 세계나문학소사, 『새빛』 3(2), 17-19.
- 홍병선(2006), 「인식정당성 개념과 오류가능성의 문제」, 『철학탐구』 20, 211-233.
- Butler, J. (2013),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역), 고양: 인간사랑.
- Chatman, S. (2003),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역), 서울: 푸른사상사.
- Davidson, M. (1997), 「시적 담론의 대화성」,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학이론』, 서울: 문학과지

성사, 224-233.

Goffman, E. (2009),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윤선길·정기현(공역), 한신대학교 출판부.

Hamilton, N. G.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김창태·이지연(공역), 서울: 학지사.

Kearney, R. (2004), 『이방인, 신, 괴물: 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이지영(역), 서울: 개마고원.

Lamping, D. (1994), 『서정시: 이론과 역사: 현대 독일시를 중심으로』, 장영태(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Steiger, E. (1978), 『시학의 근본개념』, 이유선(역), 서울: 삼중당.

Steiger, E. (1991), *Basic Concepts of Poetics*, In J. C. Hudson & L. T. Frank (Trans.), M. Burkhard & L. T. Frank (Eds.), Pennsylvania,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타자 이해에 대한 시교육적 고찰 —한하운의 시를 대상으로

박주형

이 연구는 시 읽기의 과정에서 독자의 타자 이해는 과정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타자적 요소를 적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석 과정에서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의 주된 장르적 특성인 서정성과 타자 이해의 관련성을 살피고, 서정적인 시에서의 타자 이해는 주체와 세계의 상호침투 현상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타자인 한센인들의 경험을 시로 형상화한 한하운의 시를 대상으로 타자 이해를 위한 시교육의 방향을 ‘특이성 지각에 근거한 타자의 초점화’, ‘서정적 사태에의 몰입을 통한 타자 정체성의 구체화’, ‘수용사적 성찰을 통한 타자에 대한 가치평가의 조정’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시 교육, 타자 이해, 서정성, 한센인 문학, 한하운

ABSTRACT

Poetry Educational Consideration on Understanding the Other —Centered on Han Ha-un's Poems

Park Juhyeong

On the assumption that, when reading poetry,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other is both procedural and circular, this study suggests that poetry education should enable the learner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and elaborate upon them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lyricism and the other, revealing that the reader's active interpretation efforts lead to an understanding of the other in lyric poetry.

Drawing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takes the leper poet Han Ha-un's poem as an example to suggest that, in order to foster understanding of the other, poetry education should emphasize "focalization based on singularity perception," "identification through immersion in lyrical situations," and "adjustment of valuation of the other by reflection of reception history."

KEYWORDS Poetry Education, Understanding of the Other, Lyricism, Hansen's Disease Literature, Han Ha-un